

Vol.593

2020

부산상의

BCCI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www.bcci.or.kr

“이래도 가덕군이 안도십니까!”

✓ 팩트체크

 장애물

 운항시간

 소음영향

 활주로

 이용객

 항공화물

 확장성

 환경

 사업비

김해공항 확장

VS

가덕신공항

충돌위험 높음

야간운항 불가

소음피해 극심 (2만3천 가구)

활주로 3,000m

연간 29백만명 이용

항공화물 연간 6만톤

확장 불가

환경파괴 최대

사업비 6.99조

안전함

24시간 운영

소음피해 없음

활주로 3,500m

연간 53백만명 이용

항공화물 연간 63만톤

확장 가능

환경훼손 최소

사업비 7.5조

CONTENTS

2020 Vol.593

부산상의 통권 593호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허용도 편집인 이갑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기획디자인 (주)프린테크 T. 051.301.3113~4 인쇄처 (주)프린테크 * 부산상의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01

오늘을 보다 甄

2

BCCI 뉴스

부산-울산-경남 경제계,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 촉구 공동성명
기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부울경 경제계 공동성명
부산상공회의소 비대면 기반 사업설명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책제안 발표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동남권발전협의회 개소식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1주년 기념식
부산상공회의소-부산산업과학혁신원 업무협약 체결

12

상의주요업무

코로나19극복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2020년도 부산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부산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지원 컨설팅
2020년 일자리위기극복 사업



02

지금을 읽다 讀

16

경제이슈

COVID-19 경제 충격이 가져오는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03

내일을 듣다 聽

20

회원뉴스

조광페인트 / (주)골든블루

캠코 / (주)틸코리아

BNK금융 / 선보공업 / S&T그룹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선주조 / 한국남부발전 / (주)성우하이텍

「2020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26

기업포커스

(주)금양



04

미래를 열다 開

28

CEO 추천도서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30

경제브리핑

2019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32

BCCI 리포트

대한상의 브리프

경영 / 노무 / 특허 / 관세

부산상의 인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고

20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0 세법개정안

50

안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신청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인재양성과정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교육과정

리한셀렉트(경주)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특별요금

동명대학교 공용장비센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사업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부산·울산·경남 경제계,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 촉구 공동성명

안전에 심각한 문제 있는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안 결사 반대

- ▶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부·울·경 경제계 한 목소리
- ▶ 부·울·경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광역경제권 도약을 위한 마중물
- ▶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정안 재검증 시도 즉각 중단요청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22일(수),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부·울·경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부·울·경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지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 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 내었고, 안전·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의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아울러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지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 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하여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하여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부·울·경은 과거 입지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부·울·경 지역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성명문은 3개 상의 회장이 나눠 읽은 후 참석한 언론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부·울·경 경제계 공동성명

부·울·경 경제계,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를 넘어 「가덕신공항」건설에도 한 목소리

- ▶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지체로 골든타임 줄어들어, 결과발표 시 대안도 함께 발표해야
- ▶ 부·울·경 경제계가 동남권 미래를 위해 처음으로 신공항 입지 가덕도로 공식화
- ▶ 가덕신공항, 김해공항의 태생적 한계 극복하고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이끌 것



부산·울산·경남 경제계가 부·울·경 신공항의 입지로 ‘가덕도’를 전면내세우며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26일(수),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취소와 유일한 대안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부·울·경 경제계가 지난 7월 22일 부·울·경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검증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 검증 발표와 함께 신공항 대체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공동성명에서 부·울·경 경제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토부의 무리한 수정안 제출 등으로 인해 최종검증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동남권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결과 발표 시 가덕신공항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발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 소음, 확장성,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울·경이 마련한 가덕신공항 개선안은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김해공항은 도심공항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은 해상공항으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첨단화, IT·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 유치 및 대규모 항공화물 특화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 육성 터전 마련은 물론이고 환적화물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덕신공항은 장기적으로 신북방시대에 대비하여 부산신항 및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를 통해 부·울·경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켜 줄 것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트라이포트의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여러모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취재를 통해 밝혀진 상황에서 결과발표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동남권 백년대계를 위한 관문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만큼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이후 불필요한 입지선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총리실의 최종검증 결과발표 시 부·울·경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개선안에 대한 검토결과도 함께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울·경 살리는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경제계 공동성명

지난 20여 년간 부·울·경 경제계는 신공항 문제의 정치쟁점화로 인해 피로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지난해 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이제는 검증결과와 발표가 임박하였다. 부·울·경 경제계는 동남권의 명운이 걸린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결과가 아무런 대안 없이 발표되고, 또다시 후속절차로 신공항 입지선정이 기약없이 지체된다면 제대로 된 신공항을 염원해온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받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부·울·경 경제계는 김해신공항 불가를 대비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가덕신공항 개선안을 대안으로 마련하였다. 부·울·경 경제계는 가덕신공항이 안전, 소음, 확장성, 경제성 등에서 김해신공항의 유일한 대체지일뿐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

도심공항인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가덕신공항은 해상공항으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유치 가능성이 가능하며, 환적화물 창출공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항공화물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덕신공항은 세계적 환적항인 부산신항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부·울·경이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이 될 트라이포트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처럼 부·울·경 경제계가 제시하는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고, 침체된 부·울·경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산·울산상공회의소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7월 22일 동남권 경제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부·울·경 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이 국토부의 무리한 수정안 제출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만큼 관문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검증결과 발표 시 부·울·경 경제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덕신공항 개선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결과도 함께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울·경 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결정과 건설을 통해 동남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부·울·경 경제계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는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조속히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급증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과 항공물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으로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해 줄 것을 800만 부·울·경 주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26일

부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허 용 도
울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건 영 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한 철 수

부산상공회의소 비대면 기반 사업설명회

부산상의 지역기업 대상으로 유튜브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및 교육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31일(금) 오후 2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전 설명회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플랫폼(알리바바) 활용 마케팅 지원 교육을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와 교육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You-Tube)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설명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에서는 최근 부산상의와 부산항만공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진행 절차 및 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의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상거래 오픈 플랫폼 알리바바 활용 교육에서도 사업 선정업체 및 알리바바 활용에 관심있는 60여개의 기업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비대면 형식의 설명회 및 교육은 코로나19로 인력 운용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조금 더 손쉽게 각종 사업 및 지원 참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비대면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시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책제안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역에 새로운 성장 가져다줄 최적의 전략 될 것

- ▶ 부·울·경 지역 '규모의 경제' 확보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 ▶ 광역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주력산업 및 기업 간의 가치사슬 고도화 필요
- ▶ 메가시티 구축 위한 필수요소로 산업·제도·공간전략으로 구분한 3대 추진 전략 제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19일(수)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부·울·경 메가시티(Megacity) 추진'이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동남권역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책제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제도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과제 영역은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있는 부산대 김현석 교수가 진행하였다.

정책제안에서 부산상의는 최근 글로벌 주요 선진국이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창의적 인재의 정주여건 확보와 도시 매력도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부·울·경 지역도 기업 간의 가치사슬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도시권역으로의 매력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광역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과거 국가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거점 지역으로서 인구가 800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간 유기적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설명하였다.

부산상의는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공동체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산업전략 ▲제도전략 ▲공간전략으로 세분화한 추진전략을 제시

하였다.

먼저 산업전략으로는 중후장대형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공항-철도-항만이 연계된 복합물류시스템을 통한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경제권 구축과 광역권에 산재한 연구개발시설 및 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꼽았다.

제도전략으로는 중앙과 지역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행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울·경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광역 차원의 공동현안사업 발굴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간사이 유니온이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간전략으로는 부·울·경 신공항 건설과 KTX남해선 신설 등을 통한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 강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을 잘 연계하여 동남권역이 국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였다.

부산상의는 이와 같은 전략들의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생산력 분산을 통한 지역 경제의 재도약 기회 창출 △부·울·경 지역 제조업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가속화 △동남권역에 대규모 관광·마이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도약 등을 예상하였다.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 송영길 국회의교통일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장,
지역상공인들 앞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통한 부산경제 도약 전략 제시한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금) 16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송영길 국회의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하여 부산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정부의 인천공항 몰아주기식 원포트 정책 속에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펼침으로써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 이후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울·경 지역이 나아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날 강연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가덕신공항과 조선산업 그리고 부산 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연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동안 드러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총리실 검증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김해공항이 도심공항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구조적 한계를 극복 가능한 해상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강연에 담는다.

또한 가덕신공항 건설이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위기와 관광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울·경과 전남 동부를 포함한 1,000만 인구 권역의 동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2030월 드엑스포, 복합리조트 유치 등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현안들의 추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며, "총리실에서도 이제 더 이상 검증결과 발표를 지체하지 말고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 발표와 함께 부·울·경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선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개소식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지난 9월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9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개소식을 가졌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발기인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부울경 광역 시도는 물론 상공회의소, 지역 거점대학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발기인 총회를 거쳐 동남권발전협의회 대표격인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동남권발전협의회는 그간 행정, 상공계 등이

따로따로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그동안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강력한 의지에 덧붙여 실행력과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 상공계 외에도 교육계와 민간 등 모든 분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서는 부울경의 공동위원장 22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해, 법인화 이후 첫 번째 활동으로서 24시간 운영가능한 신공항 유치 응원을 비롯한 동남권발전협의회 의향후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실체적 조직을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인력풀을 구성하여 동남권발전연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포럼활동, 명사초청 세미나, 각종 연구사업 등 동남권광역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1주년 기념식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역 경제계 단합 통해 슬기롭게 극복 결의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16일(목) 11시 30분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31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상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부산객주상법회사로 출범한 이후 1895년 부산상무회의소, 1908년 동래상업회의소, 1916년 부산상업회의소를 거쳐 1931년 부산상공회의소로 개편되었고, 1952년 상공회의소법의 공포 이후 부산 유일의 법정 종합경제단체로서 131년간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유력 인사들의 축하 속에 큰 규모로 치러진 130주년 기념식과는 달리 이날 창립 131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인사 초청 없이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게 개최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제와 지역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임직원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과 더불어 참신한 회원기업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허용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산 경제와 지역 기업이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현재의 위기를 지역경제계의 단합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도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허용도 회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주요 지역현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산업과학혁신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상의,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지역기업 위한 산업혁신 기반 조성나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24일(금) 오후 2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기술 연구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뤘는데 양 기관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부산상의가 제안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개발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주요 이슈 발굴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조사연구 추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한 조사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학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적극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발굴과 산업기술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부산상의는 지역의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부산과학산업혁신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과 이병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는 김병진 원장, 김호 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부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참가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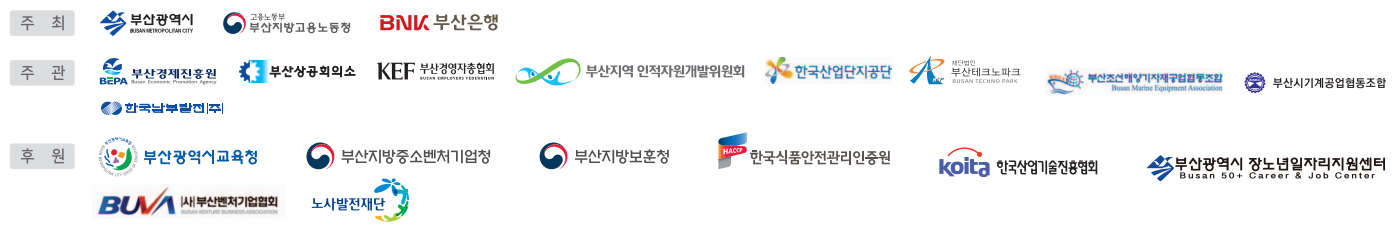
- 행사기간** 10월 12일(월)~12월 11일(금)
* 자세한 운영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참가규모** 부산지역 구인기업 100여개사
- 행사내용** 온라인 입사지원·화상면접,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면접코칭 등
- 참가대상** 구직을 희망하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 부산지역 구인기업
- 지원방법** 박람회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www.부산온라인일자리박람회.kr
- 문의사항** 부산일자리종합센터 1688-0019

참여기업

- ✓ BNK 채용장려금 지원 (채용 1명당 1백만원 지원)
- ✓ 종합 컨설팅 제공 (각종 지원 사업, 인사·노무·회계 등)
- ✓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회사소개, 복지제도 등)

참가자

- ✓ 온라인 화상 취업컨설팅 지원
- ✓ 자기소개서, 면접 등 채용과정 맞춤형 컨설팅
- ✓ 기프트콘·아이패드·에어팟 등 경품 추첨
- ✓ 잡아이 챗봇 시스템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최대할인
40%

위험은 줄이고 혜택이 더해진— 부산시 보조금 지원개시!

상공회의소 안심경영 PL단체보험(제조물책임)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 완제품 · 부품제조 · 공급 · 판매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명의를판매업체, OEM업체
- 승강기 · 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 · 유지보수업체등

가입품목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자동차부품/가전/산업기계/의료기기/건축자재
 - 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섬유/잡화
 - 전기/화학제품/반도체부품
 - 식품/음료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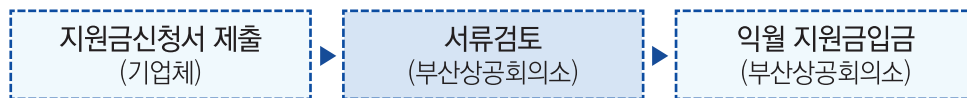
부산기업에게만 드리는 특별한혜택

- **단체가입 20% 할인** - 인증마크 5% 추가할인(국내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부산시 보조금20% 추가환급**(최대 100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운영**(국내)
- **기업에게 유리한 가입 · 사고처리** -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 개별가입보다 훨씬싸게, 사고처리는 훨씬 유리하게!
- **대한상외와 현대해상(주간사), KB, MG, NH가함께하는** 믿을수 있는 보험
- **대한상외회원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고다 · 하나투어 · 그린카 · CGV · 시원스쿨 · 건강검진 · 예다함 · 꽃배달 · SK임직원몰 등

가입절차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20% 보조금 추가환급절차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보험가입)

• 전화 : 02-6050-3875~8 • 팩스 : 070-7614-3422 • 메일 : PLcenter@korcham.net • http://PL.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보조금환급)

• 전화 : 051-990-7085 • 메일 : whjang@korcham.net

부산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지원 컨설팅 시행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부산 FTA활용지원센터)는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의 **FTA활용능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FTA활용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0. 3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분야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컨설팅(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대상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컨설팅 :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27개사 - 원산지확인서 제 3자 확인 컨설팅 : 부산 및 인근지역 제조기업 84개사
참가비용	- 무료(전액 FTA센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goldtut@korcham.net) 또는 팩스(051-990-7119) 송부
지원절차	



지원제외사항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단순 갱신 등 간단한 인증 취득의 경우 (FTA센터 전문가가 사전 심사)
문의처	- 부산 FTA활용지원센터(T.051-990-7016)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서는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bcc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 극복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선(기자재)·해양·자동차부품산업 등
고용위기업종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고용위기업종 퇴직자, 구인기업 및 일반 구직자

구직자 취업지원

- 취업 상담·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 인력매칭

-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 취업자 직무교육

■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1층) ☎ 051-990-7117

COVID-19

경제 충격이 가져오는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글 _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이사대우
(경제연구실장)

“COVID-19”이라 명명된 전염병이 국내 첫 확진자를 만들어 낸 이후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든 것도 문제지만, 경제 충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의 피해 규모를 GDP 67.2조 원과 일자리(연인원 기준) 67.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것도 올 한해에만 발생하는 피해이다.

문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사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된다면 한층 수월하게 이겨낼 터인데, 경험상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충격은 일부 계층과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COVID-19 충격이 경제 부문별로 어떤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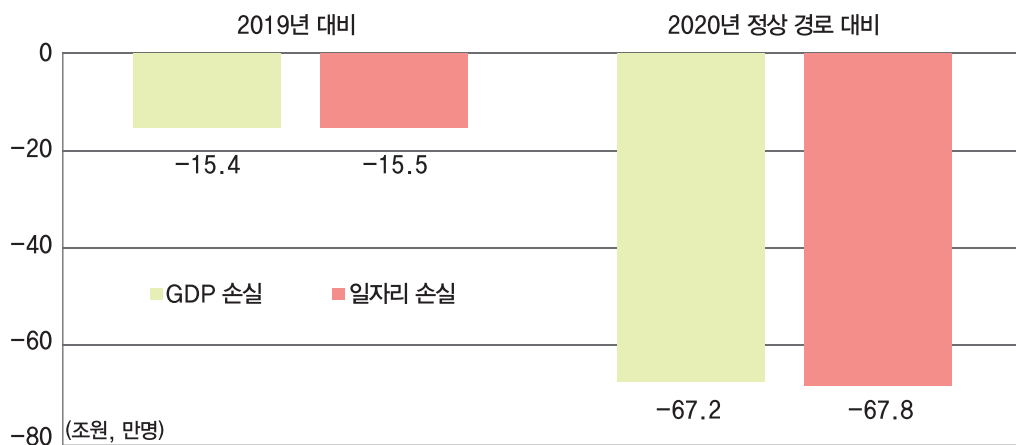


우선 수요부문별에서 민간수요와 공공수요를 보면, 민간 부문의 경기 침체를 정부 부문이 보완하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부문의 GDP증가율은 2019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0.6%에서 2020년 1분기에 감소세(-1.2%)로 전환되었으며, 2분기에는 -5.3%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정부가 시행한 1차 및 2차 추경의 영향으로 정부 부문 GDP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9% 및 5.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3차 및 4차 추경 규모를 감안하면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내수 부문과 외수(수출) 부문의 상황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내수 부문이 먼저 침체되었으며 1분기의 시차를 두고 수출 부문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문은 2020년 1분기에 급격한 침체를 보였다. 국민계정의 내수(GDP-재화와 서비스 수출) 부문 증가율은 2019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2.5%에서 2020년 1분기에 0.1%로 하락하였으며, 2분기에는 -0.6%까지 추락하였다. 한편,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COVID-19 확산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기는 다소 시차를 두고 침체되었다. 수출(재화와 서비스) 증가율은 2020년 1분기가 5.6%로 2019년 4분기(3.7%)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 2분기에 들어서야 -13.6%로 급락하였다.



산업별 충격의 영향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제조업의 불황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는 내수와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1분기에는 서비스업만 침체되었으나 2분기에 들어서 제조업과 건설업도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래 경기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기업 체감 경기는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크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의 순서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중후장대(重厚長大) 업종인 자동차(2분기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23.2%), 철강(-13.4%)이 심각한 감소세를 보인다. 나아가 석유화학(-8.0%), 조선(-6.7%)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른 ICT 제조업(9.1%)과 보건·방역과 연관성이 높은

그림 1 COVID-19로 인한 2020년 GDP 및 일자리 손실 규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의약품 제조업(8.2%) 등은 호조를 보인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과 전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 확산 등으로 여가, 교통, 물류, 소비, 교육 업종이 큰 폭의 생산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반면,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호조를 지속하였으며, 비대면 시장 확대로 ICT 서비스업 등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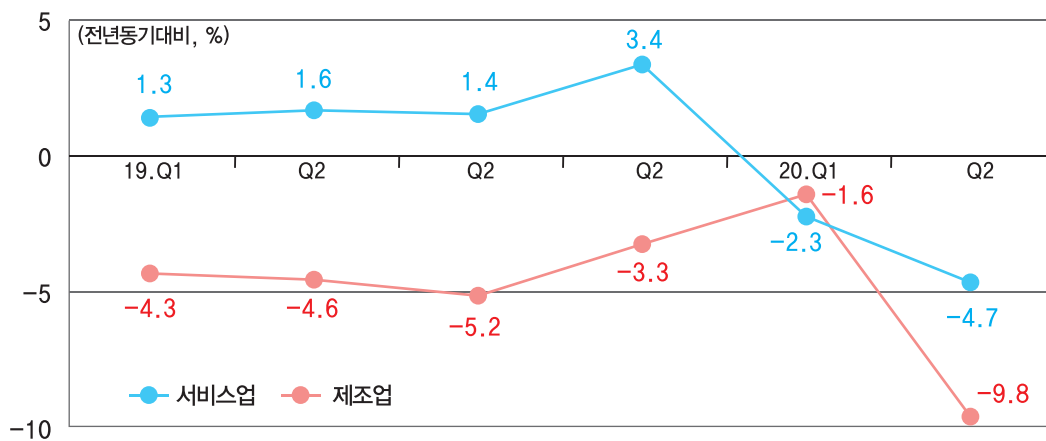
기업규모별로 보면 경제 충격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생산 활력이 떨어진다. 제조업 내에서 보면 2분기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3.3%로 역시 이번 경제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9.8%로 대기업보다 세 배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2분기 중 서비스업 내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2.0%이었으며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4.7%에 달했다.

고용시장 내에서도 계층별로 충격이 달랐다. 우선 연령대별로는 노년층과 청년 및 중장년층의 충격이 상이했다. 7월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노년층(60세 이상) 고용률은 43.8%로 2019년 7월(42.9%)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장년층



(30~59세)은 같은 기간 76.8%에서 75.5%로 1.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도 44.1%에서 42.7%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더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과 2019년 7월의 여성 실업률은 남성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2020년 7월에는 여성 실업률(4.1%)이 남성 실업률(4.0%)을 추월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 자영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업자 내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7월 중 전년동월대비 39.5만 개나 감소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일자리는 17.5만 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조업 부문에서는 가장 생산 위축이 심각한 지역은 대구광역시(6월 전년동월대비 생산증가율, -25.4%)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 기준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12.9%)가 가장 불황 강도가 높았다. 한편, 물가와 고용 상황으로 살펴본 지역별 서민 체감 경기에서 서울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분야 모두 전국 평균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COVID-19발 경제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의 그래서 경제 충격을 최대한 회피하고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생존과 번영의 기회요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방역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설마하는 심정으로 또는 경영 성과 악화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기업의 방역 정책에 구멍이 뚫릴 경우 사업장이 아예 폐쇄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힘들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 멀리 보면 이익이 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아닌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백신 개발의 소식이 들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것이 지금 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따라서 임직원 간 대면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경제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 여행사, 항공사 등 아무리 봐도 전혀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업종도 분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줄어든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경제 충격을 덜 받는 계층이 있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그 시장 수요를 찾아내고 잡는 데 조직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위기를 버틸 힘이 될 수 있다. 현실만 탓하기보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기회로 만들어 보자.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비상 경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씩씩이를 줄이는 것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출과 수입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단기 부채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 실적의 좋고 나쁨보다 들쭉날쭉한 변동성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광페인트

[차량 안전수리 매뉴얼] 마련 협약 체결



조광페인트는 지난 7월 14일, 조광페인트 음성 도료교육센터에서 경기도 검사정비사업조합, 국민 안전정비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차체 수리 정비 관련 매뉴얼 연구개발 및 실천화를 위한 사업에 페인트와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조광페인트 양성아 대표, 경기도 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 안전정비연구원 최동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광페인트(주)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와 장비를 공급하고, △국민 안전 정비 연구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체 수리 매뉴얼을 연구 개발하며 △경기도 검사 정비사업 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체 수리 매뉴얼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조광페인트가 공급하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는 조광페인트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독일 BASF사의 글라슈리트(Glasurit)이고, 장비는 카벤치(CARBENCH)사의 MURAENA(프레임수정기), CONTACT EVOLUTION(3D 계측기) 등이다.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덕분에 챌린지 동참



(주)골든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김동욱 대표가 동참했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한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금비 고기영 대표의 지목을 받은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임직원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실로암공무원원 이형주 이사장, NC그룹(주) 강경진 부회장, 경남자동차판매(주) 정경태 대표 3명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한편, (주)골든블루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후원하고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한, 4월에는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를 돕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가 동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주)골든블루는 사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캠코

임직원 1억 걸음 모아 사회적기업 지원



캠코는 9월 14일(월)부터 10월 13일(화)까지 1개월간 임직원 건강 증진과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1억 걸음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캠코 '1억 걸음 기부 캠페인'은 소셜임팩트(Social Impact) 플랫폼을 활용, 임직원들이 모은 걸음 수가 1억회*를 달성하면 회사가 4천만원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억 걸음은 임직원 1,000명이 평균 100,000걸음씩 걷는 규모로, 1걸음에 0.4원 적립

이번 캠페인으로 임직원 참여를 통해 적립한 기부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작은 걸음들을 모아 직원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기업도 도울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침마다 수영강변을 달리고 있는 만큼 매일 기부에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상생 아이디어로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스틸코리아

허현도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수상



(주)스틸코리아 허현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21일(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기계로봇산업 발전유공 포상식'에서 로봇, 기계 산업발전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05년 창립한 (주)스틸코리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해상풍력발전 부품 및 석유화학 플랜트 부품 등을 제작·가공하고 있는 지역의 견실한 기업이다. 특히 전제품 불량률 0%를 기록하는 등 국내 최고 1등 기계가공기업이자 세계적인 해상풍력발전 부품제작·가공업체로 발전해가고 있다. 한편, 허현도 대표이사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부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BNK금융

지역 이웃에 3000만원 상당 떡국떡 전달



BNK금융그룹은 지난 9월 7일 오전, 지역 이웃과의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떡국떡 나눔'을 진행했다. BNK는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 등으로 외출을 통한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BNK는 3000만원 상당의 떡국떡 1200세트를 부울경 지역 노인복지협회, 복지관 등 지역 시설에 기부해 각 지역의 독거노인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보공업

「강소기업형 일자리 인큐베이터」 MOU 체결식



선보공업은 한국남부발전(주)와 공공기관 지역 강소기업이 함께하는 '강소기업(Small Giants)형 일자리 인큐베이터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소기업 일자리 인큐베이터 사업'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정부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정규직 채용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한다.

선보공업은 삼공사, 성일터빈, 엔케이, 터보파워텍, 트랜스가스솔루션, 한국플랜트서비스, 한라MS, 한영산업, 화신볼트산업 9개 업체와 강소기업으로 참여했으며, 남부발전·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2021년 6월(약 1년)까지 일자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한다.

남부발전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참여자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력 매칭 지원, 직장 체험 현장점검, 장학금 지원을 담당한다. 선보공업 등 강소기업들은 직장체험 운영, 교육우수자 정규직 채용, 일자리 박람회 참석, 회사홍보 및 현장교육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별도 집합교육 수행 없이 참여자가 희망하는 강소기업에서 한 달간 직장체험을 통해 현장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S&T그룹

창업 41주년 기념식



S&T그룹이 창립 41주년을 맞았다.

S&T 최평규 회장은 지난 9월 13일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서신으로 기념사를 전하면서 '변화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회장은 기념사에서 "세계대전에 견줄 코로나19의 위기가 길어지면서 세계경제의 위축은 가속화되고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의 몰락이 급증하면서 국가경제의 기초 펀더멘탈도 위태롭다"며 "S&T 계열사 중 일부기업도 생산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최회장은 4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의 본질이 이동과 만남을 제약하는 것이고, 대책은 미래사회로 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고 정의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동을 가로막고 만남의 장벽을 높임으로서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은 비즈니스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전통적 소통과 기업경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강자(强者)가 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울러 S&T 창업 이후 여러 번 절체절명의 위기와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던 경험 사례를 들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분명 기회의 밝은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6월 29일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도 많이 줄어들어 힘들어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산전문건설인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회는 그동안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지원’, 남구와 부산진구 관내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나눔 지원행사’등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부산광역시청과 해운대구청, 동구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지원” 활동을 펼쳤다.

대선주조

완판 ‘대선 비치타올 세트’ 2차 판매까지...



대선주조는 지난 8월 18일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50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 ‘대선 비치타올 세트’가 판매 개시 후 전량 매진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해 대선주조가 출시한 ‘대선X콜카 슬리퍼’의 선풍적 인기 이후, 새로운 대선 굿즈를 애타게 기다리던 소비자들에게 1년여 만에 선보인 굿즈인 만큼 큰 기대와 인기를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주조는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2차 판매를 8월 27일 낮 12시부터 대선주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통해 진행했으며 대선주조는 지난 18일 ‘대선 비치타올 세트’가 조기 완판되자 감사의 의미로 첫 번째 구매 고객에게 특별 기념품인 대선 소주잔과 대선 슬리퍼 등을 함께 선물 하기도 했다.



회원기업의 신제품 출시 및 대외활동 등
다양한 소식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홍보정책실 김지영 과장 T. 051-990-7093

한국남부발전

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준공



한국남부발전(주)이 부산역 선상 주차장 지붕에 공공협업형 제1호 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했다. 공공기관 자산을 활용한 이번 사례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부응은 물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반이 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대학교와 협업 시범사업으로 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0.83MW) 발전설비(이하 '부산역 태양광')를 준공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를 확대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에 기관들의 뜻이 모이면서 추진됐다.

부산역 태양광은 연간 1,150MMh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11,300가구가 한 달간 사용가능한 양으로, 25억원대 원유수입 대체 효과와 51톤 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태양광설비와 함께 설치된 경관조명은 주차장 미관 향상에, 태양광 발전판은 차광막 기능으로 이용객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를,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자산 제공으로 20년간 최대 26억원 임대수의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운영기간 발생하는 매출액 일부를 사회공헌기금(20년간 약 9,600만 원)으로 조성해 지역 취약계층 복지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성우하이텍

백혈병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



(주)성우하이텍 임직원들이 “백혈병 환우 돕기”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주)성우하이텍은 지난 8월 26일 본사 1층 홍보관에서 (사)한국혈액임백혈병협회 정만채 회장과 (주)성우하이텍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의 정서적 지원과 수술비 및 치료보조비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성우하이텍 임직원 모두의 바람을 담았다.

(주)성우하이텍은 임직원 1,0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여 만든 기금인 ‘성우공동모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소주동 착한 이웃 나눔냉장고’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겨울 초입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를 진행하여 이웃들에게 김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 겨울이 있을 때마다 지역 사회 단체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



(주)한국로텍
최성제 대표이사



(주)성일에스아이엠
우창수 대표이사



(주)에맥
신상호 대표이사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의전실에서 '2020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 정국에서도 리스크 관리능력이 탁월한 우수 중소기업 CEO를 이번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기업인 경영역량, 성장 가능성,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도 등 엄격한 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개최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올해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는 ▲(주)한국로텍 최성제 대표이사 ▲(주)성일에스아이엠의 우창수 대표이사 ▲(주)에맥의 신상호 대표이사로 확정되었다.

특히, 중앙 대기업 독식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에 건설업체 CEO인 (주)에맥 신상호 대표이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로써 1999년부터 시상해 온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 이력에도 새로운 획을 그어 부산 지역건설업체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인 대상'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조선플랜트 경기 불황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86억 원, 542억 원, 700억 원의 매출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고주파벤딩 및 공장가공배관업체 (주)성일에스아이엠 우창수 대표이사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주)성일에스아이엠은 단기간에 실적에 매달리기 보다는 굳건한 기술력으로 경쟁기업과의 차이를 벌리면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GE·지멘스와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서도 본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비타민 등을 전달해 코로나19에서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직원 후생 복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등 지역 대표 기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마지막 수상자는 (주)한국로텍을 이끄는 최성제 대표이사이다. 이는 자동차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용 부품인 피스톤 로드(Piston Rod)를 생산하는 업체이자 현재 국내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선도업체이다. 최성제 대표이사는 업계 중견기업으로 발돋움의 목표로 글로벌시장 개척에 앞장 서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백만 볼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세계 속 부산기업을 널리 알리고 있고, 공정관리 시스템 자동화로 효율성을 높여 중국기업과의 단가경쟁 돌파구를 마련해 시장 특성화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코로나 여파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

정밀화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주)금양

글. 부산대학교 조현우



류광지 대표이사

대한민국 발포제 산업의 중추 (주)금양

대한민국 최고의 발포제 회사로 자리매김한 (주)금양은 1955년에 금북화학공업(주)에서 출발했다. 70년대초 부산의 대표산업이었던 신발산업 재료로 쓰이는 발포제를 생산했고 1978년 (주)금양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65년여동안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 부산 수출 우수상,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는 등 초우량 향토기업으로 입지를 지키며 부산 지역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50년대 당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사카린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 발포제까지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뤄 한국의 기초화학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금양은 최근 산화티타늄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스틱 첨가제와 합성수지 등 발포제와 관련된 화학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하면서 지속가능한 점프업을 도모하고 있다.

금양은 나아가 60여 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 분야를 다양화 하고 고부가가치의 성장성이 높은 사업구조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78 개국 1,980여 곳의 거래업체와 해외법인을 기반으로 구축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밀화학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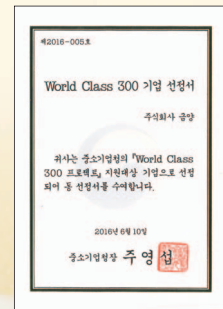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다

금양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발포제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혀 가고 있다. 특히 국내 발포제 생산 1위를 달성한 금양은 2016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시설과 고도화된 생산기술 및 타사대비 경쟁력 있고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양의 주력제품은 '발포제'다.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과 같은 고분자재료에 배합된 발포제는 열분해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켜 스펀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첨가되는 소재이다. 자동차 내장재, 운동화(나이키, 아디다스 등), 완구, 충전방음재,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보온재, 단열재 등 무수한 생활용품, 산업자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캡슐발포제'는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미세한 크기의 구형 열가소성 플라스틱 셀 속에 발포제가 들어있는 특이한 형태로 열을 받으면 마이크로 캡슐이 팽창함으로써 발포제의 기능을 나타내는 가온팽창형 물리발포제다. 이 제품은 PVC샌들과 페인트, 인조가죽, 벽지, 운동화의 Midsole 및 Outsole, 프린트 잉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미래 금양의 씨드 비즈(Seed Biz)로서 기대되는 품목이다.

품질 우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금양의 제품은 품질에 가장 민감한 전 세계 자동차 벤더, 글로벌 스포츠화 벤더가 주 거래처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생산공정의 고도화를 지속하는 등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세계일류상품인증서 / World Class 300기업 선정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금양

발포제 분야 세계 1위를 노리는 금양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부산 공장 외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와 연운항에 발포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1998년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하여 중국 내 3개 공장을 포함한 8개의 법인과 북미(미국)지사, 유럽(독일)지사가 있으며, 2019년에는 파키스탄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경쟁력 강화와 수출역량을 인정받아 2019년에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생산자의 제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친환경 발포제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아미드와 암모니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금양의 친환경발포제는 매트, 바닥재, 벽지, 신발 등 피부와 맞닿는 민감한 영역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며, 특히, 환경규제가 철저한 유럽 시장으로의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다

금양은 축적된 초미분 분쇄기술과 진공 건조기술, 첨가제 믹싱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수산화리튬, 지르코늄, 텅스텐 등을 가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공정을 자동화한 배터리소재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2차 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극재 부분이 제조원가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재는 원가절감 및 성능향상을 위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소재이다. 고성능 전기차용 수산화리튬은 매우 미세한 입자 크기를 요구하는데, 금양은 고성능 전기차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산화리튬을 매우 미세하고 균일하게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품질 첨가제를 납품하여, 첨단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응용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금년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수소전기 차량의 연료 전지에 촉매로 쓰이는 백금을 2~25나노미터(nm)크기 초미세 나노입자로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 받아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수소전기차량 구동에너지원인 연료전지 스택(FC stack)에서 대표적 전극촉매로 쓰이는 백금-카본(Pt-Carbon)의 활성 증가를 꾀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화학적 장치인 스택 내 셀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고효율 전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촉매로 쓰이는 귀금속의 입자를 최소화해 활성표면적을 최대화하고 귀금속 사용량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는 고가의 백금 사용량을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수소전기차 원가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스택의 생산 비용을 낮춰 수소전기차 제조원가



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해온 백금 등 산업용 촉매재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수입대체, 나아가 '소재기술 독립', '친환경 그린뉴딜', '수소사회 구현'정책에도 한몫을 할 전망이다.

이렇게 금양은 끊임없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금양

사상 유례없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국내외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다. 더욱이 일상에 변화가 크게 닥치면서 생김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 분위기도 그만큼 침체되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금양은 다량의 마스크를 사전에 수급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올해 초, KF94 마스크를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정부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의사회 대구지부 그리고 군위 군청에 각각 1만 장씩 기부했다. 금양의 세 가지 경영이념 중 하나인 '사회공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금양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및 교복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은 성장의 원동력

금양은 그동안 축적해온 탄탄한 기술적 기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을 일구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다각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성장성이 높은 사업구조로 변화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정밀 화학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였다.

류광지 대표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회사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성실, 적극, 협동의 사훈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 살아있는 기업이 되도록 방향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고객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류광지 대표의 경영철학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정밀화학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주)금양의 앞에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길 기대해본다.

BOOK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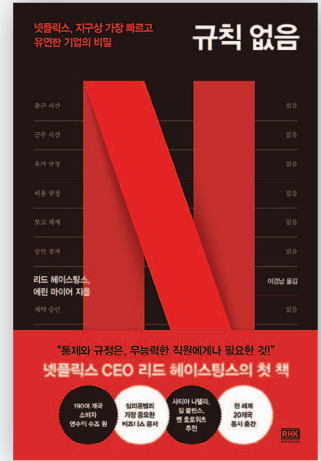
규칙 없음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메이어 / 알에이치코리아 / 25,000원

1997년 설립 당시,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 주는 회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190여 개국 전 세계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이 책은 넷플릭스의 현 CEO가 쓴 첫 책으로, 넷플릭스의 경영 방식과 기업문화에 관해 인시아드 경영대 교수 에린 마이어와 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떻게 넷플릭스는 모두의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로 세계 최고 가치의 기업이 되었을까?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판권이 팔린 《규칙 없음NO RULES RULES》에 낱낱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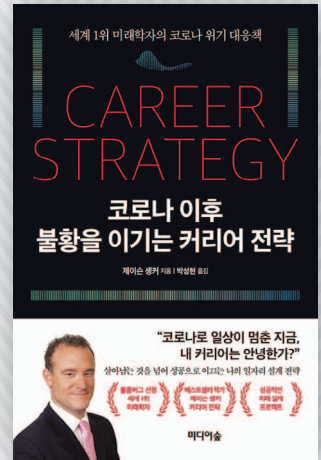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제이슨 썬커 / 미디어숲 / 14,800원

이 책은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정확하게 예측해낸 베스트셀러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 제이슨 썬커의 책으로, 앞으로 무섭게 불어닥칠 불황을 이겨낼 처방을 담은 책이다. 그저 불황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도약할 수 있는 비법을 책 속에 담았다.

2001년 경기 침체와 2008년 금융위기로 접어들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모든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그리고 현재의 불황을 지나는 데에 도움이 될 조언 역시 충실하게 담았다. 경기 침체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무직과 실직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실질적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을 세우면 어떤 불황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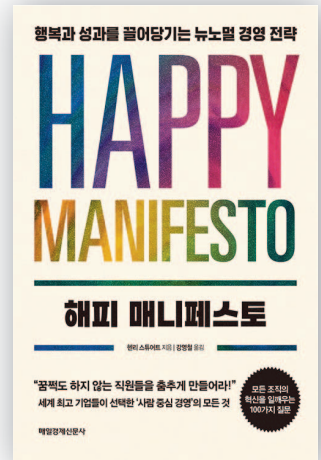
해피 매니페스토

헨리 스투어트 / 매일경제신문사 / 17,000원

이 책은 5년 연속 <파이낸셜타임스> '영국 최고의 일터'에 오른 교육회사 Happy의 최고행복경영자(CHO) 헨리 스투어트의 책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 경영'의 이론과 실천을 집약한 책이다.

Happy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샘코, W.L. 고어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실행하고 있는 행복 경영의 현장 사례들을 정리해 10대 원칙으로 소개한다.

직원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부터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터를 만드는 법, 인재를 고르고 사람을 잘 관리하는 기술부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관리자가 되는 법까지 경영 아이디어를 100가지 인사이트 질문과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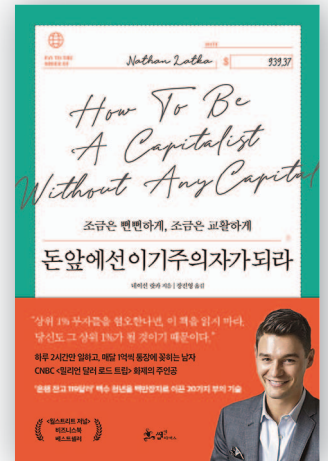
돈 앞에선 이기주의자가 되라

네이션 랏카 / 쌤앤파커스 / 18,000원

여기, 명문 버지니아 공대를 입학했지만 따분한 공부보다 스스로 '자본가가 적성에 맞는다고 여기는 20대 청년이 있다. 그는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 물건을 파는 데 재미를 붙여 무모하게도 중간고사 낙제와 자퇴를 기꺼이 선택한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직원 40명 규모의 1,000만 달러 가치 회사의 CEO가 되고, 그로부터 6년 후 IT 업체들을 사고파는 굴지의 사모펀드사의 CEO가 된다.

이 책에는 과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본 없이 새로운 틈과 플랫폼만을 활용해 돈을 버는 새로운 종족, 뉴 밀레니얼 리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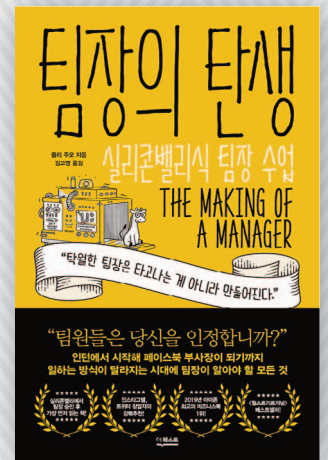


팀장의 탄생

줄리 주오 / 더퀘스트 / 16,800원

이 책은 페이스북 인턴으로 들어가 3년 만에 팀장이 되고 현재 디자인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는 줄리 주오가 쓴 '변화하는 시대에 초보 팀장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사람을 관리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자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의 관리자가 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법, 모두에게 의미 있는 회의 시간을 만드는 법,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도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는 법 등 자신이 좌충우돌하며 배운 모든 노하우를 담았다. 팀원이 단 1명이라도 생겼다면, 몇 년째 팀장이지만 여전히 사람 관리가 어렵다면 이 책이 명확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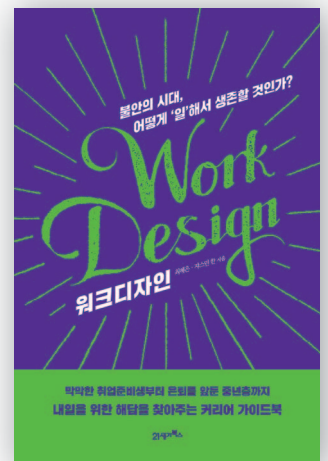


워크디자인

최혜은, 자스민 한 / 21세기북스 / 17,000원

'워크(Work)'와 '디자인(Design)'이 합쳐진 '워크디자인'은 일을 디자인하는 연구소인 워디랩스 대표와, 전 애플 비즈니스 코치이자 비즈니스 심리학자인 두 저자가 각각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만나온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과 이슈를 인터뷰, 코칭,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십수 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취업준비생부터 은퇴를 앞둔 중년층까지 막막한 내일을 위한 해답을 찾아주는 커리어 가이드북이다.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일을 '제대로 즐겁게' 하며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명한 비전과 인사이트를 제시하며 최고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2019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부산 대표 기업들의 초라한 성적표,
1000대 기업 매출총액 기준 경남의 6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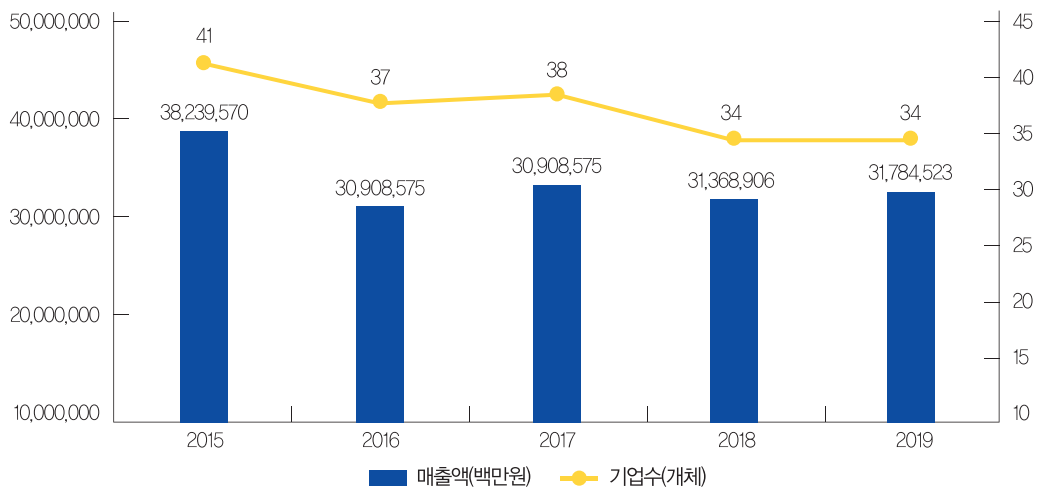
부산상의 조사연구본부
조사역 정성엽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17일(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한 '2019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34곳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인 17개 기업은 매출 순위가 500위 밖이다. 또한 34곳 기업의 총매출액 역시 31조 7,845억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전체매출의 1.4%에 그쳤으며, 이는 인천(57조 4,289억)의 55%, 경남(51조 8,153억)의 61% 수준으로 초라한 부산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이들 기업 중에는 코로나 사태로 성장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그린뉴딜 업종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비중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2014년 에어부산과 2018년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전국 1000대 기업에 신규로 진입한 것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신규기업도 찾기 힘들다.

|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추이 |



2018년과 비교해서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인 엠에스에이와 선박유류 공급사인 아이엠티인코퍼레이션 그리고 풍력 관련 세계 1위 단조업체인 태웅이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부동산 시행사인 김해센텀2차PFV, 철강기업인 금강공업, 삼성 등 3개 기업은 1000대 기업에서 탈락했다.

| 신규진입 및 잔류실패 부산기업 현황 |

구분	업체명	비고
신규진입	엠에스에이(주), (주)아이엠티인코퍼레이션, (주)태웅	3개체
잔류실패	(주)김해센텀2차피에프비, 금강공업(주), (주)삼성	3개체

르노삼성자동차는 2019년에도 부산 매출 1위 기업의 타이틀은 지켰지만 전국 매출순위는 94위를 기록, 2018년에 비해 무려 17계단의 순위가 하락했다. 또한 닛산의 로그 위탁 생산 종료 이후 추가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2020년에는 부산 유일의 전국 매출 100위 내 기업이라는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부산 매출 순위 10위권 내 지역 대표기업 중 2018년과 비교해 전국 매출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창신아이엔씨(304위→271위), 엘시티PFV (546위→333위), 화승인더스트리(452위→368위), 하이투자증권(449위→373위) 등 이었고 하락한 기업은 르노삼성차와 부산은행(152위→155위), 한진중공업(216위→234위), 서원유통(233위→246위), 성우하이텍(308위→310위) 등이다.

2019년 매출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은 현대글로벌서비스였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 배기가스 세정장치(스크러버)와 친환경 설비 개조공사 주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850위에서 2019년 463위로 순위가 387계단이나 상승했다.

|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상위 10개사 순위 |

기업명	부산순위	전국순위	매출액(억원)
르노삼성자동차(주)	1	94	4조 6,777
(주)부산은행	2	155	2조 7,445
(주)한진중공업	3	234	1조 6,095
(주)서원유통	4	246	1조 5,488
(주)창신아이엔씨	5	271	1조 4,284
(주)성우하이텍	6	310	1조 2,181
(주)엘시티피에프비	7	333	1조 1,736
디지털생명보험(주)	8	355	1조 975
(주)화승인더스트리	9	368	1조 453
하이투자증권(주)	10	373	1조 318

한편,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의 지역 편중현상은 여전했다. 2019년 매출 1000대 기업 중 754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전국 매출 순위 100위 내 기업 중 90곳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이중 79곳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다.

| 2019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매출액 및 전국비중 |

순위	지역	매출액 (백만원)	기업수	기업당매출액 (백만원)	비중 (%)
1	서울	1,467,598,744	544	2,697,792	65.2
2	경기	413,983,867	174	2,379,218	18.4
3	충남	61,035,721	33	1,849,567	2.7
4	인천	57,428,906	36	1,595,247	2.6
5	경북	55,914,841	25	2,236,594	2.5
6	경남	51,815,342	38	1,363,562	2.3
7	부산	31,784,523	34	934,839	1.4
8	울산	30,743,532	22	1,397,433	1.4
9	전남	18,341,703	16	1,146,356	0.8
10	대전	13,848,422	13	1,065,263	0.6
11	대구	11,919,604	17	701,153	0.5
12	광주	10,410,902	12	867,575	0.5
13	충북	9,459,606	14	675,686	0.4
14	전북	7,454,983	10	745,498	0.3
15	제주	4,589,369	4	1,147,342	0.2
16	강원	2,296,074	4	574,019	0.1
17	세종	2,321,360	4	580,340	0.1
-	전체	2,250,947,498	1,000	2,250,947	100

지역별 매출 총액을 비교하면 부산기업의 전체 매출 31조 7,845억원은 1위인 서울의 1,467조 5,987억원 대비 2.2%에 불과하며, 경남의 51조 8,153억원의 61.3% 수준에 그쳤다. 특히 기업당 평균매출액으로 보면 부산이 9,348억원으로 전국 11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져 대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매출 규모와 위상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핀테크,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규제개선 전략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브리프



「미래조직 4.0」 저자
김성남 HR컨설턴트

편집자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근무, 채용, 육성, 평가 등 HR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HR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기업의 HR 대응 전략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언택트(Untact)’가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위기상황에서도 조직은 정상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조직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HR 영역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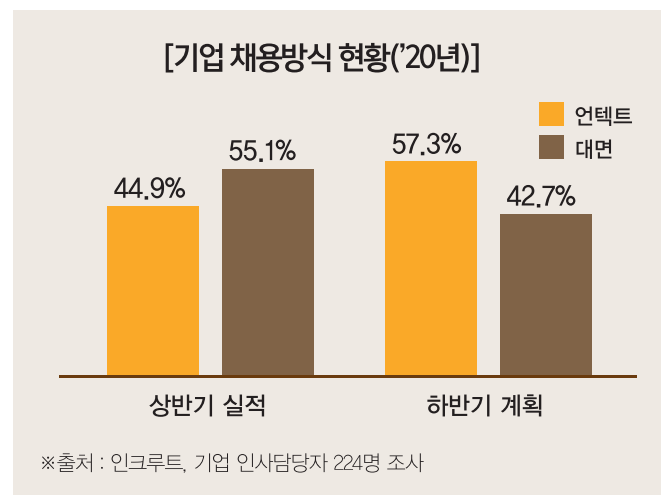
‘언택트 시대’ HR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채용, 근무방식, 육성, 성과관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자.

● 비대면 채용 적극 고려, 우수인재 확보에 유리

코로나19로 대면 면접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채용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화상면접 등 언택트 채용을 실시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상반기에 언택트 채용을 실시한 대기업들은 금년도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내 주요 대학 뿐 아니라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 대학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채용담당자들도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애만 넘어서면 실제로 대면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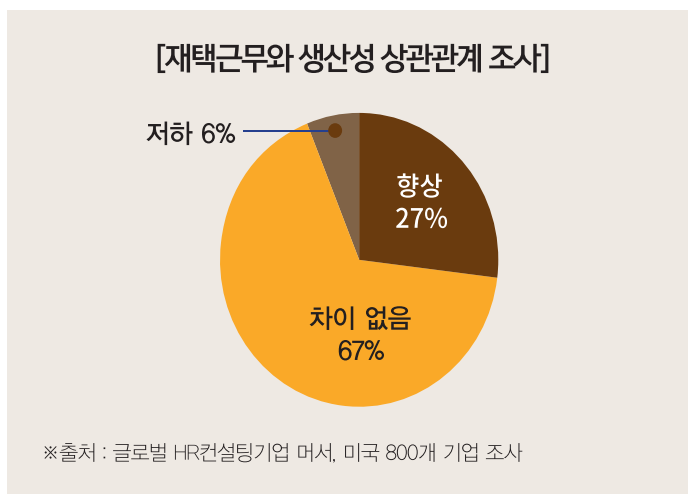


많았다. 다만, 온라인 테스트에서의 부정 행위 방지 방안이나 화상 면접을 처음 하는 면접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 일부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

기업들은 앞으로 비대면 채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우수인재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솔루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향후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충분히 도입 및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재택근무 방식 정착 위해 제도정비와 직원 협조 필요



과거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을 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로 바뀐 것이 큰 차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막상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해보니 생산성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크다고 여겨진다.

지난 8월 글로벌 HR컨설팅기업 머서가 미국 기업 8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94%가 재택근무 이후 회사의 생산성이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같거나(67%) 오히려 더 높아졌다(27%)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재택근무에 대해 더 이상 임시 방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근무 방식 중 하나로 정착시키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외부 콘텐츠 적극 선별·제공하는 '콘텐츠 큐레이터' 돼야

집합교육, 장기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한 학습 콘텐츠 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업교육은 구성원 개인별 직무, 연차, 직군, 역량, 커리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외에도 '한 입 크기 (Bite-size)' 학습 콘텐츠가 많아진 것 때문이다.

이제는 1~2시간짜리 교육보다는 5~20분 정도의 집중화된 교육 콘텐츠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어필한다. 요즘 세대들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교육만 듣기보다는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바로 익혀서 적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대면교육만이 가지는 전달력과 휴먼터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만 막상 온라인교육을 활용해 본 담당자나 사용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발견하고 있다.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접근의 편리성과 영상, 채팅, 음성 등 멀티미디어 활용 편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이다. 이에 더해 학습 데이터 관리, 지식 콘텐츠 축적 용이성 등은 생각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이제 기업교육은 '콘텐츠 큐레이터'로 변모해야 한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학습 콘텐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선별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BRIEF

● 정확한 업무지시, 결과 중심으로 빠른 평가와 피드백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방식은 기존의 과정 관찰에 기반한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로 경영 압박을 느끼는 기업 으로서는 객관적인 결과 위주의 성과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과 위주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성과관리 방식도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업무지시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업무지시는 항상 필요한 것이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직원 에게 지시를 할 때는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는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분위기, 눈치 등 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가 많지만 재택 상황에서는 그런 '비정형적'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 관련 메시지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해야 한다.

업무 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대신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주기도 기존보다 더 빠르게 가져가야 한다. 같은 사무 공간 안에서 근무할 때는 업무활동 관찰과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지만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

빠른 평가와 피드백 등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 으로 평가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짧게는 수 주, 길게는 분기 단위로 목표를 관리하는 피드백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언택트 뉴노멀' 대비해 조직에 맞는 유연한 대응 시스템 갖춰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단기 내에 탈출하기는 어렵고, 설사 중기 적으로 극복을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발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의 '언택트 시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조직의 HR 기능은 그런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채용이든 성과관리 이든, 또는 재택근무 제도의 운영이든 말이다.

앞서 설명한 대응전략들을 모든 조직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산업 및 조직이 처한 상황과 특성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 이다. 자사의 규모와 근무형태 그리고 구성원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9월 14일 기준

(단위 :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9	2.0	-2.1	3.0	-0.8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5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3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 환율·유가¹⁾

	2017	2018	2019	'20.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225	1,229	1,210	1,199	1,187
원/엔(100엔)	1,009	996	996	1,135	1,146	1,125	1,122	1,120
원/위안	167.5	166.4	166.4	172.9	172.5	170.7	170.9	171.1
원/유로	1,276	1,299	1,299	1,332	1,339	1,362	1,373	1,403
유가(Dubai)	53.2	69.7	63.5	20.4	30.5	40.8	43.3	44.0

(단위 : %(전년동기대비))

3. 산업지표

	2017	2018	2019	'20.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2.6	1.6	0.6	-5.2	-5.7	0.7	-1.6	-
소매판매	1.9	4.3	2.4	-2.2	1.7	6.3	0.5	-
설비투자	14.4	-3.6	-6.2	1.9	3.4	13.8	6.7	-
수출	15.8	5.4	-10.4	-25.6	-23.8	-10.8	-7.1	-9.9
수입	17.8	11.9	-6.0	-15.8	-21.0	-11.2	-11.6	-16.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경영상담

Management Consultation



안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순원

Tel : 051-920-5000 E-mail : schoi@akcpa.co.kr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예정임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A법인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B법인은 이월결산금이 있는 상태이며
 -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예정임

질의

- 1) 적격합병 후 종전의 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위반인지 여부
- 2)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의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신

<질의1>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2>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275, 2020. 06. 29)

노무상담

Labor Consultation



흥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주재현

Tel : 051-464-0306 E-mail : jooxoo@hanmail.net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가 있는지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임금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제1항 제4호 및 5호에서는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1] 임금채권 압류 범위에 대한 내용

월 임금(세후)	압류제한임금
~ 185만원 이하	전액(최저생계비)
185원초과~370만원 이하	185만원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임금의 50%
600만원 초과	$300\text{만원} + ((\text{임금}/2) - 300)/2$

따라서 임금채권의 압류 범위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에 따라 달리 정해 질 것입니다.
(2020년 9월)

특허상담

Patent Consultation



옥특허법인 변리사 김영옥

Tel : 051-862-6622 E-mail : ok@okpat.co.kr

본인은 수년 전부터 법인등기한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법인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후출원하여 등록받은 타인이 본인의 상호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호를 사용한 본인의 생산제품이 후등록 상표권에 침해가 되는지요?

현행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사용주의를 가미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사용해온 상표라 할지라도 타인이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게 되면 자기의 사용상표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해온 자기의 상호·법인 등기 상호의 경우는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여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상표법 제90조) 법인 상호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상호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인상호라 할지라도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법상 등록된 등기상호에 불과하므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다만 위 후등록 상표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는 후등록 상표권자보다 먼저 법원에 상호등기를 마쳐 등기상호를 정당하게 사용해왔으므로, 상기 등록상표 효력제한 규정(상표법 제90조)에 의하여 귀하의 “상호사용” 및 “귀하의 상호를 표시한 상품”의 유통판매는 후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효력제한 규정을 둔 것은 상표가 상품의 식별력을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 상호나 상표를 먼저 사용한 법인상호까지 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사용주의에 위배되고, 선의의 일반수요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하의 상호가 장기간 사용되어 상표주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경쟁회사의 후등록상표권에 대해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상표를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법에 의해 관할 법원에 상호등기를 함과 아울러 특허청에도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기상호와 상표를 함께 등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상담

Tariff Consultation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장천희**

Tel : 051-990-7125 E-mail : 1002@jchcus.com

독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예정으로 수입자가 한-EU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EU FTA에서는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등과 같은 선적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품의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만 해당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할 권한이 발생하여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인해주는 것으로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적용협정	혜택
한-EU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중국, 한-인도,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신청물품 설명서
- 원산지(포괄) 확인서
- 국내제조 확인서
- 회사소개책자,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부산상의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 추석 선물, 중기 복지플랫폼에서 사세요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 상여금의 평균 지급액이 51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조사 이후 8년 최저치다. 이처럼 낮은 지급 사정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및 중기임직원이 추석 선물을 '온라인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은 한우, 홍삼, 농수산물 등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에 살 수 있는 '추석 선물대전'을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문의전화: 1588-6555)에 가입하면 된다. 회사가 회원에 가입하면 소속 임직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현재 이 플랫폼에서는 '추석선물 대전' 외에도 휴양, 경조사, 상품물 등 120만 개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산업 데이터 댐' 만들어진다 |

①구글은 일기예보 정보를 분석해 풍력발전기의 생산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②에어버스(비행기 제조사)는 항공기 운항 데이터를 통해 정비 결함을 사전 예측하는 데 활용 중이다. ③2018년 유럽 16개국 50여개 제조사는 제조 데이터를 모두 모아 활용을 연구하는 추진체 'boost 4.0'을 출범시켰다.

AI, 로봇, 클라우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 데이터란 생산, 유통, 소비 등 산업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로, 공장 직원의 행동부터 제품의 배송정보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국내는 산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다.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개인정보와는 성격이 다른 산업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마련에 착수했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표준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방대한 양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수한 제조 인프라와 ICT 기술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댐'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의는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2)로 하면 된다.

| "숏폼 콘텐츠로 Z세대를 공략하라" |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즉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큰 인기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이를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즉 휴대전화를 가진 인간이라 불릴 정도로 스마트폰과 한 몸처럼 지내는 Z세대는 찰나의 자투리 시간에도 모바일을 통해 각종 정보를 소비하고 유희를 즐긴다.

숏폼 콘텐츠는 전문 촬영장비나 편집 기술이 없어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누구나 손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디지털 광고회사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된 광고홍보 영상물의 약 50%가 1분 이내였다. 또 연령대가 낮을 수록 길이가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15초 내외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중국 스마트폰 앱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숏폼 콘텐츠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는 올해 4월 블로그용 숏폼 동영상 편집 서비스 '모먼트'를 선보였다. 카카오도 이달 1일 출범한 카카오TV를 통해 드라마, 예능 등을 숏폼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각각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유튜브 채널인 '마니버니', '웃튜브'는 알찬 금융정보와 각 은행의 홍보 메시지를 잘 버무려 딱딱한 금융 기업의 이미지를 희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갈수록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아직 이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마케팅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에서 '모먼트'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메뉴 '#'을 통해 '카카오TV'에 들어가 보세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新투자 트렌드, ESG |

코로나19 사태,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로 환경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및 'ESG'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머리글자를 합친 말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투자를 뜻한다. 각국의 탄소 배출규제 강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 풍력 발전 관련 기업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올해 연례서한에서 “투자 시 ESG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ESG펀드에는 1168억 달러(약 140조 원)가 유입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9000억 달러(약 1080조 원)였던 세계 ESG펀드 시장 규모가 2028년 2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던 국내 ESG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19억 달러(약 14조 원)의 ESG채권이 팔렸다. 특히 7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 역시 관련 기업의 ESG 역량 분석 및 지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점점 친환경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투자자 역시 과거보다 상생,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ESG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밝다.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한국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 투자에 관한 문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www.cgs.kr, 02-3775-3339)에서도 가능하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하세요 |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키로 하고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8만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 순으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희망하는 서비스와 공급업체를 선택해 바우처로 결제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 6개 분야로, 300여개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수요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은 9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하도급 모범기업 뽐혀 인센티브 받으세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를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간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 없음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한 해 내내 직권조사를 면제 받는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조달청 물품구매격심사 시 가점(0.5점)은 물론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하도급 별점 역시 경감(3점) 해준다.

신청은 공정위 웹사이트(www.fsc.go.kr)에서 9월 18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종 선정 전에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확정 되면 모범 업체로 뽑힐 수 없다. 관련 문의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5)에서도 할 수 있다.

| “구독 경제로 충성 고객 잡아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 제품의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증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일정액을 낸 후 상품 및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각광받고 있다. 구독 경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렌탈형 모델’로 정수기, 복사기, 비데, 침대 등 내구재를 빌려준다. 최근 미술품, 명품 브랜드 가방, 가구 등으로도 확산됐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모델이다. 넷플릭스(영화), 멜론(음악), 밀리의 서재(책)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셋째 ‘정기 배송’ 모델이다. 과거 우유, 요구르트, 신문 등에 이어 도시락, 빵, 커피, 김치, 면도기, 꽃다발, 속옷,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구독 경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충성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락인(Lock-in)’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상품을 고르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와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각각 올해 국내 및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규모가 40조 원, 5300억 달러(약 615조 원)로 추산했다. 이 수치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 번의 거래로 장기 고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성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고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기업들의
보유자산 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0년 10월 中 2차 신청/접수 예정

- 1차 신청·접수는 마감(2020. 7. 17. ~ 8. 20.)
- 단, 중소·중견기업대상 자산매입 후 임대, 선박(신조) 등은 계속 진행
- ※ 지원수요에 따라 신청 종료 시점은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신청방법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접속 후
메인 화면 [기업자산 매각지원 신청하기] 클릭하여 로그인 및 정보 입력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직통전화 : 051-794-3045, 3017



1. 프로그램 운영 개요

- ◆ 운영 목적 |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기업이 보유자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
- ◆ 지원 규모 및 기간 | 2조원
 - ※ 향후 민간투자자 참여 여부, 기업의 자산매각 수요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 및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2. 지원대상 기업

- ◆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지원의 시급성·효과성, 공정성,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3. 매각지원 대상자산

- ◆ 신청기업(법인)이 매각을 원하는 국내 소재* 기업자산
 - * 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 검토 가능
 - ※ 기업이 신청한 자산 중 구체적인 매각제외 대상 유형, 선정기준 등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대상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매각 대상자산 유형 (예시)

- 건물, 사옥 등 기업보유 부동산 중 매각을 희망하는 자산
- 공장, 항공기, 선박 등 기업이 매각 후 재임차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산 (단, 공장의 경우 S&LB방식만 가능)
- 기업이 자금수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캠퍼에 매각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경영개선 등으로 재매입 할 수요가 있는 자산 등
- 기업이 자산으로 보유한 타 회사 지분 등(계열사 지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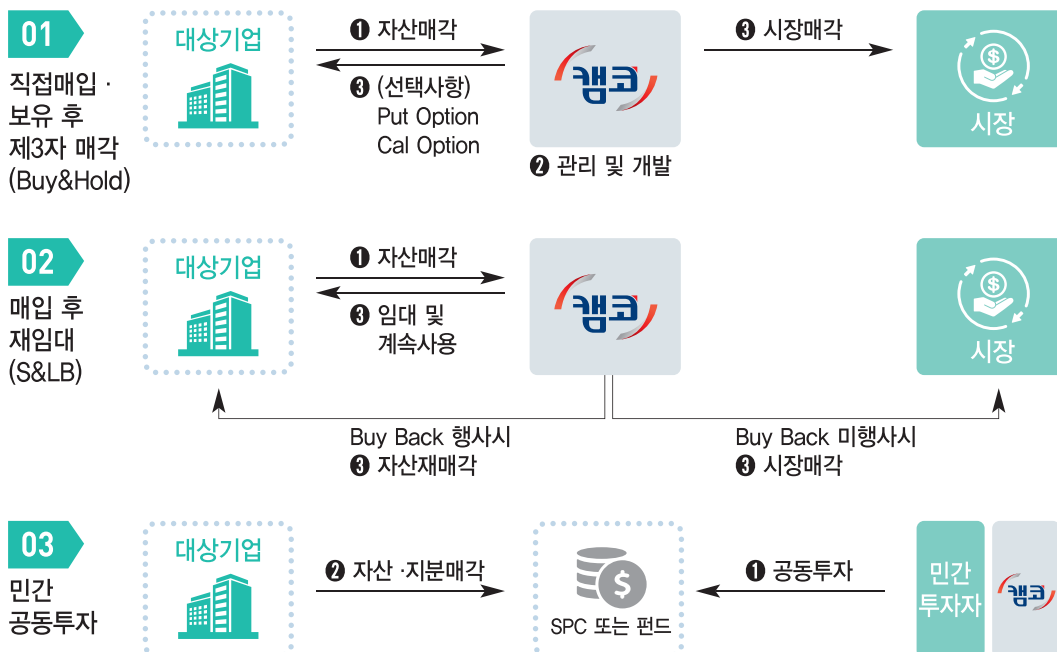
제외 대상 자산 (예시)

- 물건상의 하자나 법률상의 하자가 심각한 부동산
 -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사유로 향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말소 시 제3자의 민원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 위험시설, 환경오염물 시설 등으로서 위험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 등에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부동산
 - 항공기, 선박을 제외한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등 동산 자산
 - 회수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원여력 소진이 예상되는 자산 및 소송 계류 중 이거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 ※ 단, 상기 제외 사유에 대한 충분한 보완·치유 방안이 확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 검토 가능

4. 지원 방식

- ◆ 자산 유형별(예시 :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특성 및 기업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매입방식을 활용하여 지원 (※기업이 신청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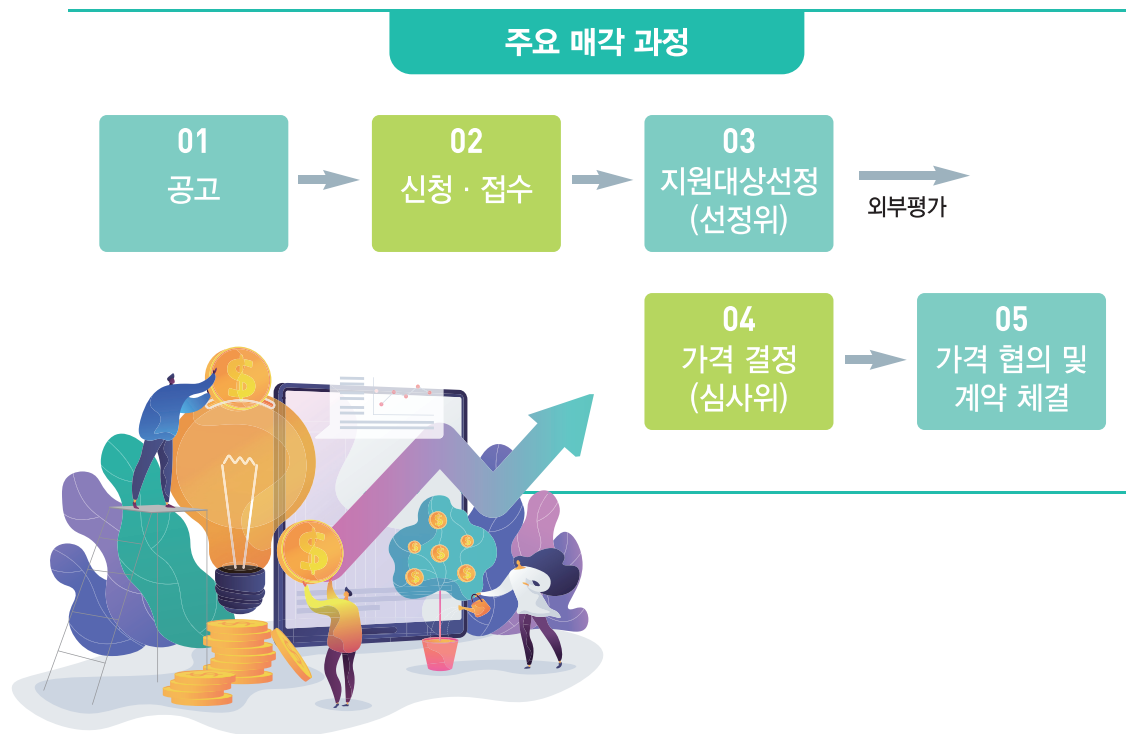
지원방식 (예시)



- 1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 & Hold)** |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 가치제고 가능 자산 등을 인수한 후 향후 적절한 매수자를 탐색하여 재매각 추진
- 2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 | 기업의 영업용 자산(공장·사옥, 선박, 항공기 등)을 캠퍼가 인수하고 해당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경영 개선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자산을 우선적으로 재인수 가능
- 3 민간공동투자** | 자산의 유형에 따라 민간자본의 참여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캠퍼와 민간이 공동투자

5. 지원 절차

- 1 대상선정 단계** | 심사대상선정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한 자산을 대상으로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① 지원 타당성
② 매입대상 자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대상 자산 선정
- 2 평가·가격결정 단계** | 매각지원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의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한 기준가격을 검토하여, 자산인수여부 및 최종가격 결정
- 3 계약체결** | 매각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및 조건을 신청 기업이 수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캠퍼와 기업이 계약 체결





20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건축물관리법 시행

01

추진배경 |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 •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2년 주기/소유자·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 주기/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

- 현행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
- 개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02

추진배경 | 외부강의 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예방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 (의원발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변경

- 외부강의 등의 신고기한을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03

추진배경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변경

주요내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6월 10일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04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05

추진배경 |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주요내용 |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06

추진배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07

추진배경 |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 추진

주요내용 |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중

어선 안전관리 강화

08

추진배경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주요내용 |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

- 출어등록 절차방법,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2020 세법개정안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소비활력 제고
- 성장동력 강화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

- 서민·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지원
-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 편의 제고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현행	개정
종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현행 제도 통합·재설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 자산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 (Positive 방식)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 방식, 토지·건물·차량 일부 제외)
공제율	제도별 상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1·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추가공제 : 증가분 투자액) 3%

이월공제 기간 대폭 확대

	현행	개정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	원칙 5년	10년
결손금	10년	15년

02 소비활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년) 상향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적격증빙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인상

	현행	개정
기준금액	1만원	3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 2년 연장

03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현행	개정
증권거래세 인하	0.25%	0.25% → 0.23% ('21년) 0.23% → 0.15% ('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3년)	이자·배당·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손실을 공제한 순소득만 과세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현행	개정
국내복귀 방식	국내 사업장 신설 필요	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
해외 생산량	50% 감축 의무	폐지
세제지원 대상 소득	국내복귀 소득	해외 감축량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 설정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현행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원	연 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연 매출액 4,800만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X	발급 의무 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계약 기간	5년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
납입한도 이월	허용 X	▶ 전년도 미납분 이월 허용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현행	개정
연 150만원	▶ 185만원 이하
- 지급기한 단축

현행	개정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02 |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 2년 연장,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1년 연장
-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1인당 공제세액 350~430만원)

세액 공제액	현행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700 ~ 770만원	450만원	-	-	▶ 1,100 ~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03 |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
5억원 이하		6 ~ 40%
5 ~ 10억원	42%	▶ 42%
10억원 초과		▶ (신설) 45%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시가 8~12.2억원)	0.5% ▶ 0.6%	0.6%	0.6% ▶ 1.2%	1.2%
3~6억원	0.7% ▶ 0.8%	0.9%	0.9% ▶ 1.6%	1.6%
6~12억원	1.0% ▶ 1.2%	1.3%	1.3% ▶ 2.2%	2.2%
12~50억원	1.4% ▶ 1.6%	1.8%	1.8% ▶ 3.6%	3.6%
50~94억원	2.0% ▶ 2.2%	2.5%	2.5% ▶ 5.0%	5.0%
94억원 초과	2.7% ▶ 3.0%	3.2%	3.2% ▶ 6.0%	6.0%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거주기간 요건	현행		개정	
	보유기간 연 8%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현행		개정	
	40%	▶ 70%	1~2년	기본세율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 (3주택 이상)	현행		개정	
		▶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6%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10→20%)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현행	개정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니코틴 용액 1㎖당 740원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상장법인 제외, 과점주주 범위 축소)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누락 과세표준 × 0.8 ~ 3.2%)

02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추가·명확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현행	개정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무귀책시에만 발급	▶ 관세법상 벌칙사유, 고의적 부정행위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03 |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 추가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제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가 함께 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씀씀이가 바른기업

“ **당장의 생계와 끼니가 걱정되는 어려운 이웃은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건강까지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씀씀이가 바른기업이 되어주시면,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적십자는 세상 가장 약하고 아픈곳을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그 곳에 닿을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소유진

씀씀이가 바른기업이란?

마음 따뜻한 기업이 지역의 위기가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 (20만원 이상)을 정기후원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해주신 기업에는 명패를 보내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씀씀이가 바른○○'으로 명칭 변경 가능



씀씀이가 바른기업 참여혜택

◎ 후원금 법정기부 세제혜택

구 분		★ 법정기부금 단체 - 대한적십자사	지정기부금 단체 - 타 NGO 단체
세제혜택	법인	연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연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사업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 위기가정 지원 등 활동의 높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후원 누적금액별 적십자 포상 제공

◎ 제빵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인재육성, 지역별직업 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동훈련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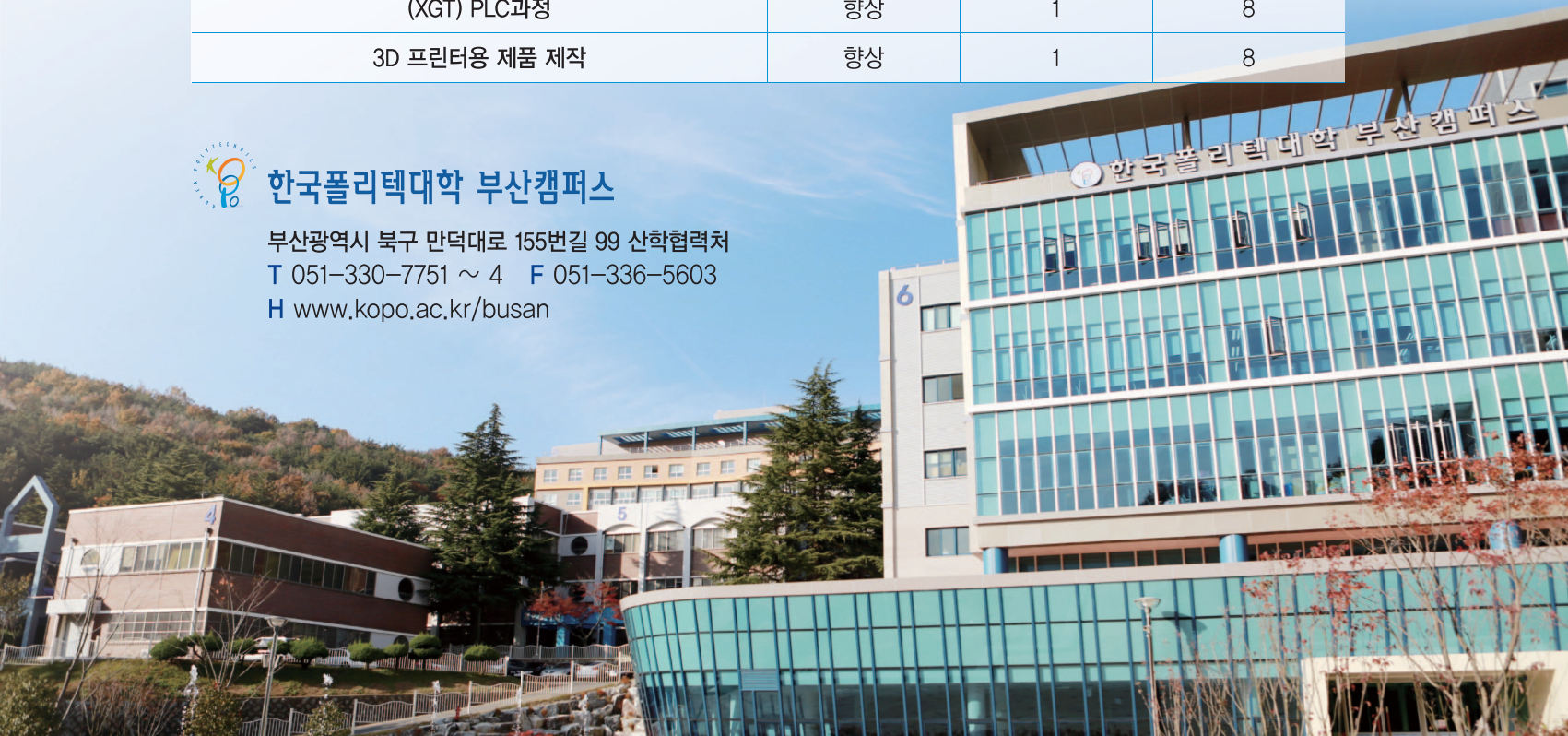
▶ 2020년 하반기 훈련과정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형태	훈련일수	훈련시간
전기용접 일반	항상	1	16
특수용접기본 일반	항상	1	16
가스텅스텐아크용접(TIG용접)	항상	2	16
와이어컷 방전가공	항상	1	8
NX(UG) 3D Modeling	항상	1	8
SIMENS PLC 및 HMI 제어	항상	1	8
공장자동화실무	항상	1	8
PLC기본(MELSEC)	항상	2	16
서보모터제어	항상	2	16
(XGK) PLC과정	항상	1	8
(XGi) PLC과정	항상	1	8
(XGT) PLC과정	항상	1	8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항상	1	8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산학협력처
 T 051-330-7751 ~ 4 F 051-336-5603
 H www.kopo.ac.kr/busan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020년(2학기), 2021년(1학기)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IPP 참여기업 모집

경성대학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핵심사업인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 청년고용률 향상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참여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업·직종 무관)
(실습생 요청 1명 이상)
- 전 단과대학(전학과) 3,4학년 재학생 (휴학생 및 보건의계열 제외)

실습분야

- 경영, 회계, 총무, 연구, 설계, 품질, 생산, 물류, 서비스, 음식조리 등 기업내 전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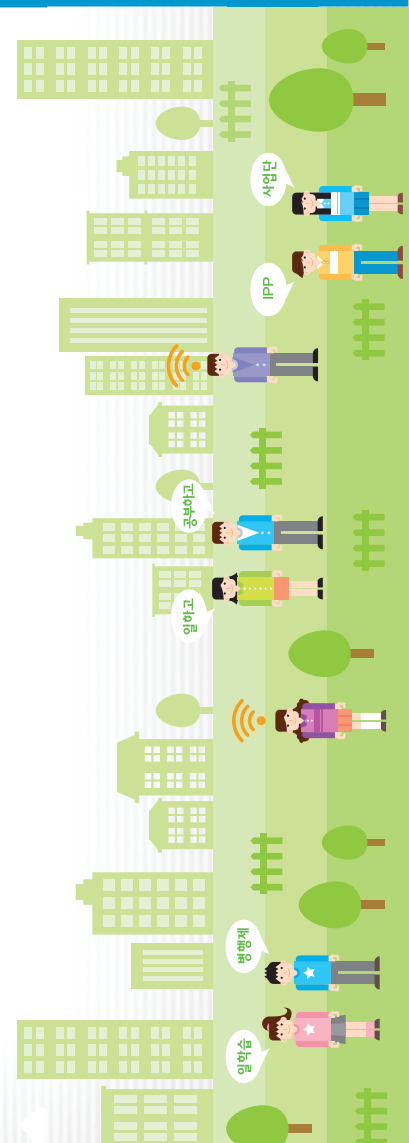
실습기간

- 2020.09.01 ~ 12.31 / 2021.03.01 ~ 06.30

기대효과

- 기업홍보효과
- 실습생 1명당 정부지원금 40만원 지원 등
 - 경성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서 활용
 - 월 140만원 이상 부담(2020년 최저 임금 180만원 이상 기준)
- 실습종료 후 직원 채용시
 -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절감
 -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IPP장기현장실습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기업-대학 모두가 Win-Win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t 051.663.5612~8 f 051.663.5619
e pethsas@ks.ac.kr
h <http://ipp.ks.ac.kr>



IPP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형 일학습병행
대학형 일학습병행으로써
대학과 기업간의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취업활성화를 도모

일학습병행
한국형 도제제도



2021년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 양성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고용과 연계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육성 및 채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현장중심
인재육성

청년 조기입직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도모

❖ 일학습병행 목적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참여기업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 일학습병행 특징 스펙초월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 01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기업주도
- 02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 03 생산현장의 시설·장비 활용
- 04 평가를 통한 NCS기반 자격 부여

현장에서
실무교육

병행

학교에서
이론교육

참여기업지원
(행정적 지원)

- 01 병력특례업체 지정 1순위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02 일학습병행 수료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03 물품제조, 구매 낙찰자
결정시 0.5점 가점
- 04 클린사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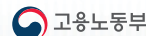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방식 OFF-JT와 OJT의 상호연계



참여기업지원
(재정적 지원)

최저 임금
월 180만원 이상
지급시(2020년 기준)

정부지원금
약 90만원(월) 지원
(훈련비 + 훈련수당 등)



LAHAN SELECT

라한셀렉트(경주)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특별요금

천년고도 경주 문화유산의 중심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럭셔리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0.09.01 - 2020.12.31

PACKAGE

• 세금포함가/전관 리뉴얼 객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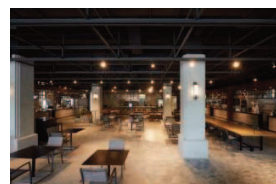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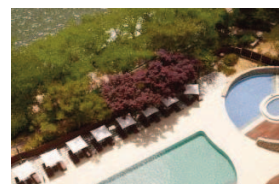
구분	정상가	객실 요금	2인 조식(선택)	비고
일~목	500,000원	130,000원	56,000원	Deluxe Double or Deluxe Twin
금		180,000원		
토, 연휴 전일		270,000원		
성수기		330,000원		



BENEFIT

- 실내의 수영장 및 사우나 이용 시 50% 할인 제공
- 포토뮤지엄 '경주나인' 무료이용
- Family Zone 이용 시 50% 할인 제공
- 조식 인당 28,000원으로 할인 제공 (소인 20,000원 적용)
- 헬스장, 무선인터넷, 객실 내 미니바 제공
- 볼링장 '더스트라이크' 게임당 1,000원 할인 (최대 4인)
- 그로서리 편집샵 '경주상점' 제빵류 10% 할인

FACILITY



경주 산책

서점과 카페를 겸한 라이프 스타일 공간 경주산책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에 맞춘 큐레이션 도서를 비롯해 디자인 소품, 아트 워크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선보입니다.

Wonderland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원더랜드에서 볼풀장, 블록놀이 등으로 꾸며진 '키즈라운지'와 사계절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만나보세요.

Indoor&Outdoor Pool

키즈풀, 어덜트풀,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자쿠지로 구성된 실내수영장과 보문호수 전망을 자랑하는 야외수영장은 오직 라한셀렉트 경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색적인 물놀이 공간입니다.

Market 338

유럽의 마켓 컨셉이 도입된 셀렉 다이닝 공간 'Market'은 기존 호텔 레스토랑과는 차별화 되는 신개념 미식공간을 선보입니다. 셀렉다이닝에서 웨스턴, 아시안 등 다양하고 트렌디한 메뉴와 식문화를 경험해보세요.

예약 1644-8005 / 부산사무소 010-3588-2998

안내사항

- 예약 시 패키지 상품명을 말씀해주시요.
- 체크인 시 명함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해주시요.
- 당사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금액은 디럭스 더블 or 트윈 객실(Hill View)만 이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Lake View로 업그레이드 시, 40,000원이 추가 됩니다.
- 각 부대시설 운영시간은 투숙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업장 이용 전 반드시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 입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입실 2일전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1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명대학교 공용장비센터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고가 3D프린터 보유 / 3D스캐닝,역설계 제작 시스템 구축

3D프린터

FDM,SLA방식

3D데이터를 실물로 바로 확인하세요.

- 고강도 산업용 ABS재료
- 반투명 에폭시 재료
- 표면이 매끄러운 P.P재료
- 1미터 이내 대형 크기 제작

3D스캐너

광학식 스캔

높은 정밀도의 3D데이터를 지원합니다.

- 0.01mm이내 높은 정밀도
- 실제품 비교 측정
- 2D도면 추출
- 3D도면 추출

설계 / 역설계

GeomagicDesignX

개발품을 설계/역설계로 제작합니다.

- 역설계 오차 범위 0.1mm이내
- 아이디어 및 기획 제품 설계 구현
- 캐드 데이터 수정 및 보완
- 제품 기획 및 개발 솔루션 상담

[중소기업청 지원 연구기반활용 사업 운영기관]



상담 및 방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소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제 1공학관 113호 Tel 051)629-3891, 3893 E-mail js1004ok@naver.com

HOSTED BY :



TRADE X PO 35th
indonesia

Exhibition | TTI Forum | Business Matching | Business Forum & Counseling

VIRTUAL EVENTS

JOIN INDONESIA'S FIRST AND BIGGEST VIRTUAL TRADESHOW

10 - 16 NOVEMBER 2020



SUSTAINABLE TRADE IN THE DIGITAL ERA

- 수출 지원 서비스
- 제조품
- 가구 및 공예품
- 식음료 제품
- 패션 및 액세서리 제품
- 기타

ORGANIZED BY :



ENGINE SYSTEM :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76, 대한통운빌딩 103호
 전화: +82-51-441-1708 팩스: +82-51-441-1629
 웹사이트: <http://itpc-busan.kr> 이메일: itpc-kor@kemendag.go.id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대강당 1F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m²)
현판규격 : 710cm×6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400,000원	야간(18:00~)	450,000원
오후(14:00~18:00)	500,000원	초과(1H)	110,000원
1일	800,000원	냉, 난방	140,000원

상의홀 2F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m²)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400,000원	야간(18:00~)	450,000원
오후(14:00~18:00)	500,000원	초과(1H)	110,000원
1일	700,000원	냉, 난방	140,000원

국제회의장 2F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m²)
현판규격 : 414cm×44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280,000원	야간(18:00~)	340,000원
오후(14:00~18:00)	350,000원	초과(1H)	80,000원
1일	500,000원	냉, 난방	100,000원

중회의실 2F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m²)
현판규격 : 414cm×55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220,000원	야간(18:00~)	280,000원
오후(14:00~18:00)	280,000원	초과(1H)	70,000원
1일	400,000원	냉, 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할인(50%) : 회원업체(당연) **할인(20%)** : 입주사, 유관기관, 회원업체(임의), 3일(전일)연속 사용업체 / 업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경영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동문이 강한! 사례중심 교육의 요람!

제55기 경영학석사학위과정 (MBA)

■ 모집학과 경영학과

학과	모 집 인 원
경영학과(야간)	70명

■ 전형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원서 교부 및 접수	2020.10.19.(월) ~ 11.06.(금) 24:00	2020.11.30.(월) ~ 12.11.(금) 24:00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2020.11.11.(수) 17:00까지	2020.12.16.(수) 17:00까지
구술면접고사	2020.11.13.(금) 18:00	2020.12.18.(금) 18:00
합격자 발표	2020.11.27.(금) 14:00	2020.12.24.(목) 14:00
합격자 등록	2021.01.04.(월) ~ 01.06.(수) 예정	2021.01.04.(월) ~ 01.06.(수) 예정

■ 학사·장학제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수업(19:00~21:15)/5학기제 논문 / 무논문 학위과정 운영 학위취득 후 박사학위과정에 지원 가능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지속지원 장학금 지급(수업료 40%) (부산시 MBA 과정 운영 대학 중 최저 수업료) 기타 공무원 장학금 / 가족장학금 지원

■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바로가기



제55기 최고경영자과정(AMP)

■ 모집인원

60명

■ 전형일정

- 접수 : 2020. 10. 26(월)~정원 총원 시 까지
- 접수 방법: 인터넷 입학지원서 제출
경영대학원 우편 및 방문제출
- 면접고사: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입학지원서 바로가기

■ 교육기간

- 2021년 3월~2022년 1월 (1년 과정)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00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강의 만족도 최상]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동문 네트워크 [동아대 졸업생 20만여명] [AMP 수료생 3천여명]

4차산업혁명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CEO의 예측 능력향상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업과 실행을 위한 Know-How 학습

■ 특전

- 동아대학교 동문 자격 부여
- 동아의료원 동문가족 진료카드 발급 및 감면혜택
-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
- 동문회 주최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가

동아대학교 재학생 가족 및 AMP 기수로 원우 수강료 50% 감면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사무실
Tel (051)200-8412~3 Fax (051)200-8415